

외국인 4인조 K팝 그룹 '이엑스피 에디션'

# “재미로만 하는게 아냐... 꼭 성공하고파”

“안녕하세요. 이엑스피 에디션(EXP Edition)입니다!”

외국인으로만 이뤄진 4인조 K팝 그룹 '이엑스피 에디션'은 팀명을 큰 소리로 외친 뒤 고개를 90도로 숙였다.

이른바 '아이돌 그룹 인사법'이었다. 멤버 헌터·코키는 미국 시메·프랭키 각각 크로아티아·포르투갈 출신이다.

이들을 만난 곳은 영등포 신길동이었다. 관광 오는 외국인도 한 명 없을 주춧대 단지 한가운데 '이엑스피 에디션'의 연습실과 숙소가 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채네 왜 여기 있지?' 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이제는 카페에 가고 장을 보러 가도 다들 익숙해져서 어딜 가나 반갑게 맞아주세요.”(웃음)

'이엑스피 에디션'은 K팝이 좋아 미국 뉴욕에서 한국으로 날아왔고, 지난달 17일 싱글 '필 라이크 디스'(FEEL LIKE THIS)를 내놨다.

이달 초에는 모든 K팝 그룹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음악 방송에도 출연했다. 이들은 명실상부 K팝 팬이 아닌 K팝 그룹이다.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무대에 올랐다가 숙소로 돌아와 방 청소를 하면서 앞서 했던 공연을 떠올려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나죠.”

시작은 팀명처럼 '실험'(experiment)이었다.

2014년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에서 현대 미술을 전공하던 김보라씨는 평소 K팝에 관심이 많던 아시아계 친구들과 '이머 비버'(IMMABR, I'm Making A By Band)라는 회사를 만들어 오디션을 열고, 팀을 만들었다.

논문의 일환으로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각각 배우·모델·뮤지컬배우 등으로 뉴욕에서 활동하던 K팝 팬인 네 남자를 한데 모았고, '이엑스피 에디션'의 한국 상륙까지 이어졌다.

“저희는 항상 K팝 그룹이었어요. K팝의 중심인 한국에 가서 활동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K팝을 하면서 한국 문화를 배우지 않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한국에 와야 했어요.”

K팝이라는 말은 흔히 쓰이지만, 그만큼 모호하기도 하다.

특정 장르를 일컫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한국어 가사로 된 노래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일종의 분위기처럼 느껴지도 한다. 반대로 이 분위기만 있다면 K팝은 어떤 장르이건, 어떤 언어로 쓰이든 상관 없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K팝은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걸 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겠죠. K팝은 이미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이엑스피 에디션'은 K팝이 좋아 미국 뉴욕에서 한국으로 날아왔고, 지난달 17일 싱글 '필 라이크 디스'(FEEL LIKE THIS)를 내놨다.

생각해요. '이게 K팝이다'라고 정의하기는 힘들죠. 그 다양성이 좋아서 K팝 그룹을 하게 된 겁니다. '이엑스피 에디션'이 하고 싶은 음악도 K팝의 다양성' 아래 있다.

이들은 “우리에게는 다 다른 배경이 있다”며 “각자 색을 K팝에 담고 싶다. 그게 합쳐졌을 때 나올 K팝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이라고 했다.

이들의 이런 시도를 대중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K팝의 확장을 탈감지 않아 할 이들은 없다. 음원 사이트 멜론에는 “진정한 시도다” “호기심으로 들었는데, 노래가 좋다” K

팝을 사랑해서 고맙다” 등의 댓글이 달려있다.

그러나 '이엑스피 에디션'의 행보에 의문을 보내는 시선도 있다.

화제성 이벤트 이상의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매년 수십 개의 아이돌 그룹이 무대 한번 제대로 가져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현실도 이들의 미래를 마냥 낙관할 수 없게 한다.

'이엑스피 에디션'은 “3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들었던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3년 이상 해오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K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희의 시도를 보면서 용기를 가졌다고 말해줍니다. 왜 그런 도전을 하냐고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응원해주요. 그런 분들에게서 많은 힘을 얻고 있어요.”

이들은 그러면서 “재미로만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한국에 왔어요. 뉴욕에 있는 가족과 친구도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저희는 바닥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꼭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하지 않으면 안돼요. 저희도 죽기 살기로 하고 있어요.”

/뉴시스

MBC 새 월화드라마 '파수꾼' 오늘 첫방



MBC가 오늘부터 새 월화드라마 '파수꾼'(극본 김수은, 연출 손형석)을 내보낸다.

'파수꾼'은 범죄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평범한 일상이 무너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아픔을 이겨내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투윌스'(2013) '개인의 취향'(2010) 등을 만든 손형석 PD가 연출을 맡은 이번 작품에는 이시영·김영광·김태훈·김슬기·키 등이 출연한다.

손 PD는 “'파수꾼'은 역올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복수 이상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직접 복수를 하기보다는) 해킹이나 CCTV 등을 통해 범죄자들의 죄를 세상에 알리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KBS 2TV '쌈, 마이웨이', SBS TV '엽기적인 그녀'와 경쟁하게 될 '파수꾼'은 두 작품에는 없는 강렬한 액션으로 승부를 본다.

이시영은 “경쟁작들이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 드라마의 탄탄한 대본을 믿는다”며 ‘매일 촬영날이 기다려질 정도’라고 했다.

이시영과 호흡을 맞추는 김영광은 복수를 위해 걸린 검사 ‘장도한’을 맡았다. 김태훈은 정의를 지키는 검사 ‘김은중’을, 김슬기는 CCTV로 세상과 소통하는 하키코모리 ‘서보미’를, 키는 천재해커 ‘공경수’를 맡았다.

/뉴시스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옥자' 예고편 공개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옥자' 예고편이 지난 18일 공개됐다. 2분7초 분량의 예고편에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옥자'의 대략적인 서사 구조가 영상으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거대 동물로만 표현됐던 옥자가 최초로 선을 보여 관심을 모은다.

'옥자'에는 옥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동물을 둘러싸고 각 이의 집단이 대립하는 과정, 산 속에서 옥자와 10년 동안 함께 산 미자(안서현)가 납치된 친구를 구하기 위해 뉴욕까지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가 담길 예정이다.

예고편은 미란도 코퍼레이션의 CEO '투시 미란도'(틸다 스윈턴)의 대사로 시작한다. 미란도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했고, 그 기적을 이뤘습니다. 아름답고 특별한 이 동물은 축산업계의 혁명이죠. 우리 슈퍼피자는 크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사료도 적게 먹고 배설물도 적게 배출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맛이 끝내줘야지”라는 말하는데, 이를 통해 '옥자'의 전개 방향을 일부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옥자'는 올해 칸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해 지난 19일(현지 시간) 프랑스 칸에서 최초 공개됐다. 국내 개봉일은 다음 달 29일이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